

1. 머리말

'88년 7월 18일, 이란의 유엔 휴전 결의안 수락에 이어, 8월 20일 이란·이라크의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같은 상황변화를 맞이하여, 시장 최대의 관심은 바야흐로

이란·이라크의 석유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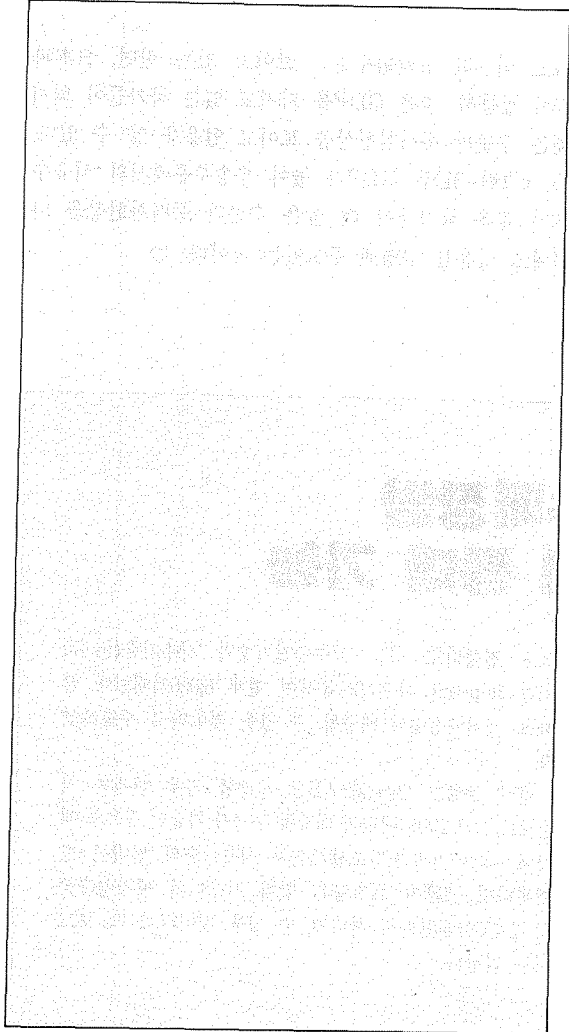
결속회복과 이란·이라크 양국의 향후 原油생산·수출 동향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의 石油시황은,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美國의 WTI 원유가격은 '88년 9월말 현재 14달러를 밀도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8월 3일 개최된 OPEC(석유수출국기구) 감시위원회에서 石油시황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못한 사실과 9월 3일 OPEC의 스부로토 사무국장의 이란·이라크 양국에 대한 산유쿼타 조정의 실패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란·이라크 양국이 전후 복구를 내세워 原油생산·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만, 10월 17일 石油시황 회복을 위하여 GCC(灣岸 협력회의)에서는 OPEC 13개 회원국의 石油생산 상한을 1,742.9만 b/d(1,506b/d 플러스, 이란과 같은 수준의 이라크 생산쿼타 236.9만 b/d)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도 준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그 직후인 20일부터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OPEC의 가격동향 감시위원회와 장기전략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는, 이란·이라크의 쌍방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회의가 끝났지만, OPEC 전체의 생산량 한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은 앞으로 밝은 전망의 여운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즉, 11월에 재개된 합동회의와 그것에 뒤이은 OPEC 정례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이란, 이라크의 의견대립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OPEC의 '89년 상반기 생산상한을



구체적으로 1,850만 b/d로 설정한 것에 OPEC가 합의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양 당사자인 이란 · 이라크의 전쟁을 사이에 둔, 이제까지의 石油생산 · 수출정책을 검증함과 동시에, 양국이 이번의 새로운 생산 한도를 기준삼아, 향후 어떠한 석유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분석해 본다.

2. 이란 · 이라크 전쟁이 양국의 석유정책에 미친 영향

(1) 이란, 이라크 전쟁이 미친 경제효과

이란, 이라크에 있어서, 양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 석유산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80년 9월

22일에 발발한 전쟁은, 이란, 이라크 쌍방의 石油공급량과 수출량, 그리고 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은 이란, 이라크 쌍방 모두 상대국의 石油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점 목표로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란측은 이라크의 파오 등 石油수출기지를, 이라크측은, 이란 국내 최대인 아바단 정유공장(후에 하르그島 및 同 석유수출기지로 출입하는 탱커)에 대한 공격을 주요 목표로 한 것이다. 요컨대, 양국은 상대국의 石油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수입원을 봉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란은 국내의 제품 공급뿐만이 아니라 石油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한편, 이라크도 페르시아灣에서의 수출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결국 양국의 石油 수입은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표-1) 이란 · 이라크 전쟁과 石油관련 사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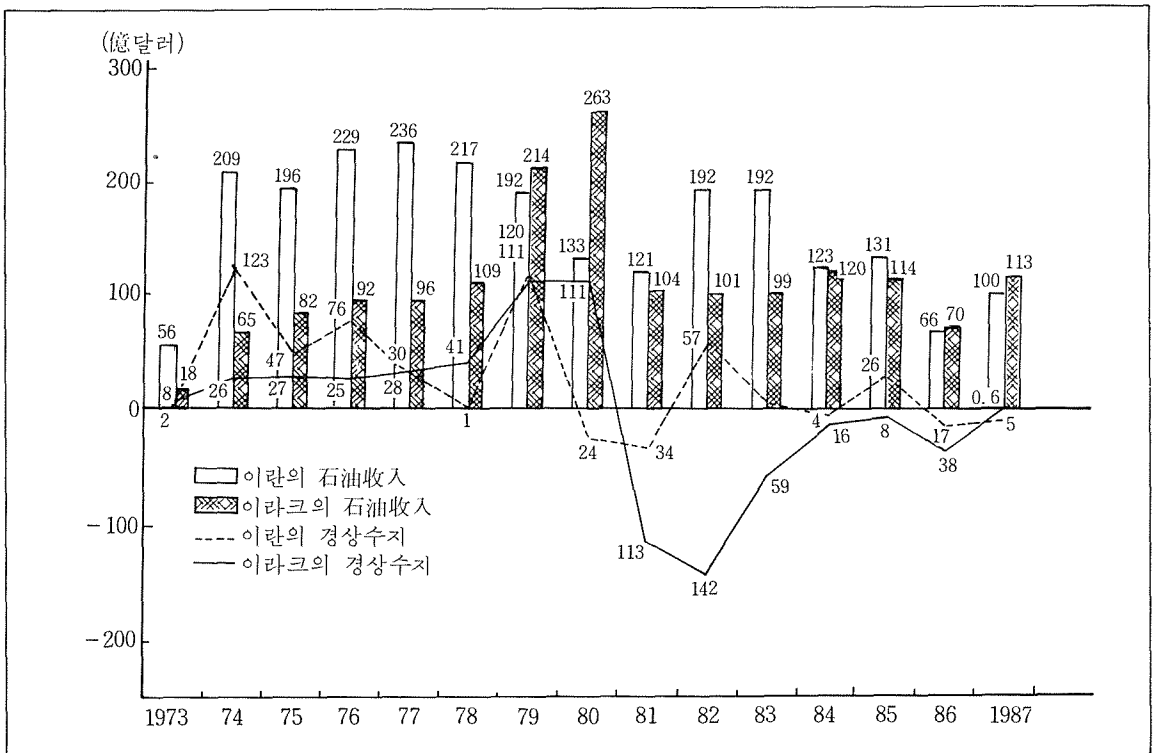
1980. 9	이란 · 이라크의 전쟁 발발 이라크, 이란 최대의 아바단 정유공장 폭격
1982. 4	이란, 호루. 알. 아바야, 미나. 알. 바클, 파오의 석유수출항 공격
1983. 2	시리아, 이라크의 파이프라인 정지
1984. 3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전쟁자원원유를 이라크에 공급개시
9	탱커전쟁 본격화
1985. 8	이라크, 하르그島 공격 본격화
11	이라크, 하르그島 폭격 본격화
1986. 1	하르그島 폭격으로 원유수출 정지
3	이라크, 가나베의 펌프스테이션 폭격
7	탱커 공격 강화
8	이란, 셔틀탱커 수출기지를 실리島에서 라라크島로 변경
8	이라크, 실리島 폭격
8	이란, 수출기지를 라라크島에서 실리島로 다시 옮김
9	이라크, 루메이라의 石油시설 폭격
11	이라크, 라라크島 폭격
1987. 1	이라크, 하르그島 폭격
2	탱커 공격 강화
3	이라크, 하르그島, 가나베 石油시설 공격
6	이라크, 하르그島 공격, 탱커 공격
9	탱커 공격 강화
1988. 8	휴전발효 휴전 교섭개시

〈표-2〉 이란·이라크의 재정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천 b/d)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 란															
輸出總額	6,207	21,571	20,211	23,507	24,260	22,101	19,976	14,106	12,597	19,430	19,512	12,531	13,435	7,500	-
石油輸出量	5,424	5,532	4,886	5,330	4,986	4,575	2,642	938	855	1,804	1,776	1,579	1,607	1,464	
石油收入(輸出)	5,617	20,904	19,634	22,923	23,599	21,684	19,186	13,286	12,053	19,233	19,225	12,255	13,115	6,600	1,530
(石油收入比率%)	(90.5)	(96.9)	(97.1)	(97.5)	(97.3)	(98.1)	(96.0)	(94.2)	(95.7)	(98.9)	(98.5)	(97.8)	(97.6)	(88.0)	-
輸入總額	3,393	5,433	10,343	12,894	14,645	13,549	9,738	12,246	12,499	11,955	18,320	15,370	11,635	10,359	-
무역수지	2,814	16,138	9,868	10,613	9,615	8,552	10,238	1,860	98	7,475	1,192	△ 2,839	1,800	△ 2,859	-
경상수지	154	12,267	4,707	7,660	2,816	104	11,968	△ 2,438	△ 3,446	5,733	358	△ 414	2,575	△ 1,730	△ 510
이 라 크															
輸出總額	1,955	6,601	8,297	9,272	9,649	11,061	21,573	26,519	10,445	10,117	10,130	12,334	11,716	7,280	-
石油輸出量	1,933	1,870	2,096	2,280	2,203	2,418	3,309	2,494	800	861	787	917	1,155	1,466	1,780
石油收入(輸出)	1,842	6,534	8,227	9,201	9,560	10,913	21,382	26,296	10,422	10,104	9,900	11,992	11,380	6,980	11,300
(石油收入比率%)	(94.2)	(99.0)	(99.2)	(99.2)	(99.1)	(98.7)	(99.1)	(99.0)	(99.8)	(99.6)	(97.7)	(97.2)	(97.1)	(95.9)	-
輸入總額	894	2,371	4,215	3,470	3,899	4,213	7,179	13,942	20,735	21,534	12,166	11,078	10,556	9,302	-
무역수지	1,061	3,982	4,082	5,802	5,750	6,848	14,394	12,607	△ 10,290	△ 11,387	△ 2,036	1,256	1,160	△ 2,022	-
경상수지	802	2,619	2,705	2,494	2,990	4,147	11,117	11,119	△ 11,335	△ 14,253	△ 5,890	△ 1,646	△ 794	△ 3,800	△ 58

〈그림-1〉 이란·이라크의 재정 추이



〈資料〉 OPEC통계, PIW.

게다가 전비 조달은 양국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쳐, 양국의 경상수지는 악화일로로 걸었으며, 극단적인 외화부족 사태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라크는 '81년 이후 적자기조로 전락하여, 양국의 경제를 파멸로 이끈 전쟁경제의 재생산성의 법칙을 실증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양국의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른 군사비의 부담은 이라크가 커서, 결과적으로 개전 당시 350억 달러로 전해지던 대외자산의 철수 후, 팽창한 대외 채무를 안게 되었다. 이같은 양국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이라크가 휴전결의를 이란보다 1년전에 조건부로 수락을 표명한 사실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의 실정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이란, 이라크 양국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던 이란, 이라크전쟁은 양국의 石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이란의 石油생산 · 수출정책

'80년 9월에 발발한 對 이라크 전쟁으로, 동년 이란의 石油생산량은 전년대비 54%로 급감하였다. 이같은

배경에는, 전년 2월 이란혁명으로 수립된 최고혁명정권이 표방한 「석유자원보존」과 석유산업 자립화, 즉, 산유량의 억제와 가격유지 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혁명정권에 의한 石油정책 전환은 팔레비 前 정권 시대의 안정된 石油공급국으로서의 입장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단, 실제 이같은 급락의 근본적 원인은, 전쟁에 따른 생산량의 물리적 저하, 그리고 유전자체의 노후화로 생산능력이 전년도의 450만 b/d에서 300만 b/d 수준으로 저하 된것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이란은 '80년 이후 對 이라크 전쟁의 항방과 세계 石油시황을 주시하면서, 생산삭감에 따른 가격유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은 「석유자원 보존」이라는 전략에 직접 기인한다기 보다는 對 이라크 전쟁 계속 수행을 위한 石油수입의 확보가 최대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이란이 출산하여 OPEC 총회등에서, 생산삭감등의 조치를 주장한 것은 이같은 실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 결과, '79년의 이란혁명에서부터 제2차 석유위기

〈표-3〉 이란 · 이라크의 石油생산(수출) 추이

(단위 : 천 b/d, * 억배럴)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															
原 源 生 産	5,860	6,021	5,350	5,882	5,662	5,241	3,167	1,467	1,315	2,391	2,441	2,032	2,032	2,073	2,285
(對전년증감율: %)	(16.7)	(2.7)	(△11.0)	(9.9)	(△3.7)	(△7.4)	(△39.6)	(△53.7)	(10.4)	(81.8)	(2.1)	(△16.8)	(7.9)	(△7.1)	(△7.1)
(對 OPEC : %)	(18.9)	(19.6)	(19.7)	(19.1)	(18.1)	(17.6)	(10.2)	(5.5)	(5.8)	(12.6)	(14.4)	(12.4)	(14.2)	(11.1)	(12.9)
原 油 수 출	5,277	5,369	4,671	5,213	4,867	4,447	2,407	796	714	1,623	1,718	1,521	1,568	1,454	1,530
(對전년증감율: %)	(17.3)	(1.7)	(△13.0)	(11.6)	(△6.6)	(△8.6)	(△45.9)	(△66.9)	(10.3)	(226.7)	(5.9)	(△115)	(3.1)	(△7.3)	(5.2)
(原유수출비율: %)	(90.0)	660	(87.3)	(88.6)	(86.0)	(89.9)	(76.0)	(54.3)	(54.3)	(67.9)	(70.9)	(74.9)	(76.5)	(14.4)	(13.9)
*原유 확인매장량	600	660	645	630	620	590	580	575	570	553	510	589	590	929	929
(對 OPEC : %)	(14.2)	(13.6)	(14.3)	(14.4)	(14.1)	(13.3)	(13.2)	(13.2)	(13.0)	(11.9)	(10.8)	(11.5)	(11.0)	(14.4)	(13.9)
이															
原 油 生 産	2,018	1,970	2,261	2,415	2,348	2,562	3,476	2,646	897	1,012	1,098	1,221	1,404	1,876	2,079
(對전년증감율: %)	(37.6)	(△2.4)	(14.8)	(6.8)	(△2.8)	(9.1)	(35.7)	(△23.9)	(△66.1)	(12.8)	(8.5)	(11.2)	(15.0)	(33.6)	(10.8)
(對 OPEC : %)	(6.5)	(6.4)	(8.3)	(7.9)	(7.5)	(8.6)	(11.2)	(9.8)	(4.0)	(5.3)	(6.5)	(7.5)	(9.1)	(10.2)	(11.7)
原 油 수 출	1,925	1,849	2,058	2,241	2,167	2,384	3,275	2,459	746	811	725	856	1,085	1,372	1,700
(對전년증감율: %)	(34.1)	(△3.9)	(11.3)	(8.9)	(△3.3)	(10.0)	(37.4)	(△24.9)	(△69.7)	(8.7)	(△10.6)	(18.1)	(26.8)	(26.5)	(23.9)
(原유수출비율: %)	(95.4)	(93.9)	(91.0)	(92.8)	(92.3)	(93.1)	(94.2)	(92.9)	(83.2)	(80.1)	(16.0)	(70.1)	(77.3)	(73.1)	(81.8)
*原유 확인매장량	315	350	343	340	345	321	310	300	320	590	650	650	650	720	1,000
(對 OPEC : %)	(7.5)	(7.2)	(7.6)	(7.7)	(7.8)	(7.2)	(7.1)	(6.9)	(7.3)	(12.7)	(13.8)	(12.7)	(12.1)	(11.2)	(14.9)
O P E C															
原 油 生 産	30,989	30,729	27,155	30,737	31,253	29,805	30,929	26,879	22,509	18,992	16,992	16,347	15,448	18,333	17,702
*原유 확인매장량	4,218	4,850	4,499	4,390	4,400	4,450	4,356	4,344	4,384	4,663	4,710	5,104	5,370	6,445	6,707

(資料) OPEC통계, PIW, BP통계

를 계기로 '80년대에 걸쳐서 이란 독자의 가격정책도 한 몫 거들게 됨으로써, 原油가격이 30달러를 상회하여 폭등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관점에서는 石油가격의 급등은 수요의 저하와 급속한 경기후퇴를 초래하였다.

이란은 어려운 상황과 對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81년도에 들어 수출량의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독자적인 판매노력으로 전비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수출판로를 확보하였다. 이 때문에, 세계 불황에 따른 石油수급 완화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수출량은, '82년부터 '83년도에 걸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이같은 사실이 생산수준을 회복시키는데 최대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84년에 들어서자 전쟁 상대국인 이라크는 이란의 石油수입원인 石油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이란의 최대 石油수출기지인 하르그島에 출입하는 탱커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요컨대, 이란·이라크 전쟁이 페르시아만으로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85년에는 하르그島에 대한 과상공격과 함께 탱커·셔들선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어 同島는 일시 폐쇄

되었으며, 일시적으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란 石油수출의 태반을 의존하고 있는 하르그島에 대한 공격도, 이란의 신속한 복구사업으로 수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란의 수출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단, 이같은 이라크의 공격으로 하르그島를 향하는 선박 및 하르그島에서의 적화보험요율이 급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져, 이란 原油가 비싼 느낌을 주는 결과로 되었다. 이란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책으로서 이같은 사태에 대응하고, 동시에 판매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스파트 판매의 확충에 노력하였다. 한편, 이란은, 하르그島의 石油수출기지 의존에서의 탈피를 위하여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있는 인도양 연안, 자스크항까지의 파이프라인 부설계획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이란·이라크 전쟁이 페르시아만으로 확대된 사실은 이란에게 필요이상의 경비부담을 강요하는 한편, 수출경로의 다양화를 모색시키는 결과로 되었다.

이리하여 이란은 혁명정권의 수립에 따라, 생산억제, 가격유지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지만, 對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량, 수출량이 저하되어, 일시

〈표-4〉 이란의 石油수출 추이

(단위 : 천 b/d)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北 美	316.2(13.1)	22.2(2.8)	-	59.6(3.7)	144.7(8.4)	66.7(4.4)	79.2(5.1)	117.8(8.1)
{ 캐 나 다 }	{ 28.9 }	{ 1.3 }	-	{ 7.8 }	{ 43.2 }	{ 8.4 }	{ 10.7 }	{ 30.0 }
{ 미 국 }	{ 287.3 }	{ 21.4 }	-	{ 51.8 }	{ 101.5 }	{ 58.3 }	{ 68.5 }	{ 87.8 }
中 南 美	373.0(15.5)	56.5(7.1)	67.3(9.4)	77.1(4.7)	50.0(2.9)	14.0(0.9)	20.0(1.3)	25.0(1.7)
西 歐	898.5(37.3)	364.3(45.7)	331.7(46.4)	835.8(51.5)	848.0(49.3)	825.1(54.2)	760.0(48.4)	621.2(42.8)
{ 프 랑 스 }	{ 129.5 }	{ 24.4 }	{ 30.4 }	{ 74.7 }	{ 84.6 }	{ 68.4 }	{ 81.9 }	{ 65.2 }
{ 서 독 }	{ 232.7 }	{ 113.9 }	{ 30.4 }	{ 45.9 }	{ 41.7 }	{ 48.8 }	{ 53.5 }	{ 40.9 }
{ 이 탈 리 아 }	{ 44.9 }	{ 18.9 }	{ 55.9 }	{ 260.5 }	{ 237.3 }	{ 189.4 }	{ 145.0 }	{ 135.2 }
{ 네 델 란 드 }	{ 106.7 }	{ 12.8 }	{ 9.4 }	{ 143.4 }	{ 138.7 }	{ 155.0 }	{ 88.0 }	{ 81.6 }
{ 스 케 인 }	{ 88.4 }	{ 62.6 }	{ 101.6 }	{ 125.9 }	{ 148.9 }	{ 118.5 }	{ 85.3 }	{ 65.8 }
{ 英 國 }	{ 102.3 }	{ 24.8 }	{ 25.6 }	{ 51.2 }	{ 15.1 }	{ 54.8 }	{ 12.5 }	{ 9.7 }
{ 터 어 키 }	{ - }	{ - }	{ 30.0 }	{ 63.5 }	{ 108.0 }	{ 149.3 }	{ 109.4 }	{ 40.5 }
東 歐	63.7(2.6)	9.7(1.2)	11.5(1.6)	76.0(4.7)	60.0(3.5)	85.0(5.6)	95.0(6.1)	95.0(6.5)
中 東	46.9(1.9)	7.1(0.9)	8.4(1.2)	180.0(11.1)	140.0(8.1)	160.0(10.5)	170.0(10.8)	95.0(6.5)
아 프 리 카	28.5(1.2)	4.3(0.6)	5.1(0.8)	6.5(0.4)	6.0(0.5)	15.0(1.0)	25.0(1.6)	35.0(2.4)
아 시 아 · 極 東	668.6(27.8)	328.0(41.2)	286.9(40.1)	380.0(23.4)	470.0(27.3)	356.0(23.4)	418.0(26.7)	465.0(32.0)
{ 日 本 }	{ 477.7 }	{ 267.0 }	{ 137.2 }	{ 230.3 }	{ 395.8 }	{ 257.8 }	{ 258.9 }	{ 220.6 }
오 세 아 니 아	11.6(0.6)	4.1(0.5)	3.7(0.5)	8.2(0.5)	-	-	-	-
{ 호 주 }	{ 2.7 }	{ 1.0 }	{ - }	{ 8.5 }	{ - }	{ - }	{ (1.1) }	{ - }
計	2,407.0(100%)	796.7(100%)	714.6(100%)	1,623.2(100%)	1,718.7(100%)	1,521.8(100%)	1,568.3(100%)	1,454.0(100%)

〈資料〉 OPEC統計(1986)

(표-5) 이란의 정제능력 추이

(단위 : 천 b/d)

	1980	1982	1985	1987
아 비 단	635.0	-	-	-
테 헤 란	220.0	220.0	220.0	220.0
이 스 파 한	240.0	240.0	240.0	240.0
타 브 리 즈	80.0	80.0	80.0	80.0
시 라 즈	40.0	40.0	40.0	40.0
바 크 타 탄	15.0	-	15.0	15.0
라 반	20.0	20.0	20.0	20.0
마스저드슬레이만	70.0	70.0	-	-
計	1,320.0	670.0	615.0	615.0

· 灣岸전쟁에 의한 파괴
 <資料> OPEC 統計

적이거나 본래의 정책수행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4년 이후, 石油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수출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인하 판매 등의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단, 이같은 정책전환은 이란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86년에 들어서 OPEC 전체로, 요컨대, 종전의 가격유지 정책에서 마켓세어 유지정책으로의 전환으로서,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이 결과 '86년에는 원유가격이 폭락하여, 이란의 石油수입은 전년대비 반감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외화부족이 심각하게 되어, 대외자산의 철수 및 수입억제 조치, 수입유전스의 연장 등 긴급대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란은 이같은 原油가격의 급락을 배경으로, 지상명제인 「석유수입의 확보」 때문에 동년 12월의 OPEC 총회에서 「전쟁 상대국인 이라크를 제외하고, OPEC 전체의 국별 할당량을 부활시킨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 결과, 이란은 사우디의 협력을 얻어 '87년 이후 산유쿼타 삭감, 18달러의 固定油價 체제로의 복귀를 환수하였다.

이리하여, 시황은 호조로 돌아섰으며, 이란의 산유량도 회복기조로 되었다. 이것은 수출면에서 대 이라크 전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란이 필사적으로 수출선의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들면, 국내의 정제 능력이 전쟁피해로 반감하자, 그 제품의

공급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출原油의 일부를 위탁 정제한 후, 이란으로 역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계약, 이란의 수입억제책에 의한 물자부족 해소를 위하여 정부간 바터거래의 확대, 그리고 가격인하에 의한 스파트 판매의 확충 등 현명한 판매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과는 '87년 11월 美國에 의한 이란원유 禁輸조치의 발동이란 사태에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란이 수출선의 다변화를 꾀한 것은 단순히 「석유수입의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판매 상대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당시 국제적으로 심하게 고립감을 느끼고 있던 이란으로서, 실로 石油전략 나아가서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단, 石油수입의 면에 있어서 바터거래는 직접적으로 石油수입에는 관련되지 않아, 이같은 점에서 石油수입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서구나 일본에 대한 수출의 확보가 이란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우기 '87년 7월의 메카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와의 정치관계가 악화되고 그것이 OPEC내에서의 石油정책상의 대립으로까지 발전, 石油시황을 다시 악화시켰다. 게다가 '87년 4월의 대 이란 단교조치 발표이후 사우디는 이란과 대결자세를 선명히 하고 이란을 휴전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스스로 증산을 함으로써, 原油가격의 하락을 사실상 용인한 사실은 이란으로서의 목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동시에 이란에게 있어서 이같은 경험은 향후 사우디아와의 협조 노선을 포함하여 이란의 石油전략상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3) 이라크의 石油생산·수출정책

이라크는 '75년말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80년대를 향하여 石油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쏟아 부어 생산능력 400만b/d의 증산체제를 목표로하였다. '79년의 이란 혁명에 즈음에서는, 이란의 감산분을 보충한 결과 생산수출량 모두 이란을 추월하고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하여, 사우디에 이어 OPEC 제2위의 산유국으로 도약하였다. 실로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80년대에 발발한 對 이란전쟁으로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의 생산수출량은 다대한 영향을 받았다(표-3 참조). 이것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이 페르시아만에 면한 石油수출기지 파오등을 공격하여 페르시아灣에서의 수출을 전혀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라크는 조속히 石油수출 경로를 파이프 라인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그런데 '82년 4월 아랍 유일의 이란 지원국인 시리아가 자국경유 파이프라인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여, 이라크는 나머지 터어키 경유 파이프 라인에 전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苦境에 빠졌다.

이같은 수출량의 물리적 저하는 당연히 생산량에도 반영되어, 戰前의 1/3 이하 수준으로까지 급락하였다. '83년 2월부터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이라크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30만 b/d의 「전쟁 지원 원유」를 이라크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 것도, 전쟁 발발이래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이란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이라크의 심각한 사태가 '84년 들어 이란에 대한 탱거 공격이라는 사실로 된 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어쨌든 이라크는 증산체제 확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對 이란 전쟁의 영향아래 파이프 라인의 증강 신설에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터어키 경유 파이프 라인(전쟁 발발 당시, 능력 70만b/d)을 '84년 8월의 확장공사 완성에 따라 수송능력 100만 b/d로

증대하였다. 한편 사우디를 경유하는 파이프 라인 부설 계획은 홍해 연안의 얀브에 이르는 것으로 '85년 9월 50만 b/d의 수송능력을 갖는 파이프 라인을 완성하였다. 그 결과 동년 가을 시점 이라크의 파이프 라인 수송능력은 150만 b/d로 증가되었다.

이라크는 이같은 原油 수송능력 확충을 배경으로 생산량의 회복을 꾀하였다. 對 이란 전쟁개시 초부터 수출량의 대폭적인 감소로 石油수입도 감소하여 수출의 90% 이상, 국가수입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石油수입의 회복은, 對 이란 전쟁 수행상 필수 불가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출 판로 개척에도 현명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출량은 '85 이후의 서서히 회복되었고, 생산수준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對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군사비의 팽창에 石油수입의 신장이 뒤따르지 못하여, 아랍각국으로부터의 재정원조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자금부족은 결국 대외 채무의 증대로 이어졌다. 게다가 '86년의 石油가격 폭락은, 파이프 라인에 의한 수출 확대를 전략으로 삼아 石油수입의 회복을 노린 이라크에게 새로운 재정적 시련을 주게 되었다. 요컨대 이라크로서는 채무 상환계획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對 이란 전비 자금 조달을 위하여 더 한층 수출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라크는 동년 8월의 OPEC 임시총회에서 생산쿼타의 확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전쟁상대국인 이란의 타협안(이라크를 제외한 OPEC의 생산쿼타 삭감)에 따라 이라크는 생산쿼타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 이 결과 이라크의 산유량은 '87년에 11%증가하여 전쟁개시 이래 처음으로 200만 b/d의 수준을 확보하였다.

이같은 생산수준 회복의 배경으로서, 동년 7월 터어키 경유(제2 파이프 라인)의 완성으로 수송능력이 새로 50만 b/d 증강된 사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87년 이라크의 原油 수송능력은 200만 b/d로 확충되었다. 요컨대, 이라크의 석유정책(원유 수출정책)은 對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페르시아만에서의 수출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출경로가 크게 제한되었다. 종전, 높은 생산능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출경로의 확충이 이라크의 생산량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표-6〉 이라크의 원유 수송능력 추이와 전망

(단위: 만 b/d)

파이프라인	1980	1982	1985	1987	1989	비고
터어키경유파이프라인						
세이한港 (제 1)	70	70	100	100	100	1984확장공사(8월완성)
" (제 2)	-	-	-	50	50	1987年 7月 27日완성(펌프스테이션 건설로 100萬b/d로 확장계획중)
" (향후)	-	-	-	-	(70) ^a	1987年 4月 터어키와 동의
사우디아라비아경유파이프라인						
안브港(IPSA-I)	-	-	50	50	0	1985년 9월 완성, IPSA-II 스타트後停止 예정
안브港(IPSA-II)	-	-	-	-	165	1989년 9월 완성예정
시리아						
바니아스港	100	-	-	-	-	1982년 4월 시리아에 의해 폐쇄
레바논						
트리폴리港	40	-	-	-	-	
수송능력 計 ^{a)}	210	70	150	200	315	
内需量 ^{b)}	20	20	30	40	40	
합計	230	90	180	240	355	
페르시아灣岸에서의 수출능력(參考) ^{b)}	450	-	-	-	(미정)	
原油수출	246	81	109	170	-	
原油생산	265	101	140	208	-	

〈註〉 1) '85년도까지는 "OPEC통계, '87년도 이후는 Arab Journal"

2) 터어키 경유 파이프라인은 '89년 이후 시기가 불투명하여, (70)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

3) 파이프라인 능력은 "Arab Oil Gas Journal"

4) 현재, 이라크의 원유수출능력은 터어키, 요르단으로의 육상 운송능력 20~30만 b/d포함, 약 230만 b/d로 전해진다. ('88년 9월 현재).

5) SBM설치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100만b/d이상의 수출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7〉 이라크의 石油수출 추이

(단위: 천 b/d)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北 美	100.7(3.1)	52.6(2.1)	11.2(1.5)	2.7(0.3)	10.4(1.4)	10.0(1.2)	58.0(5.3)	81.2(5.9)
(美 國)	(92.2)	(33.4)	(11.2)	(2.7)	(10.4)	(10.0)	(56.0)	(78.0)
中 南 美	344.6(10.5)	269.5(1.0)	72.1(9.7)	160.0(19.7)	178.0(24.6)	196.0(22.9)	174.8(16.1)	165.0(12.0)
西 歐	1,579.7(48.2)	1,307(53.2)	446.5(59.8)	423.6(52.2)	435.0(60.0)	594.0(69.4)	677.6(62.4)	762.3(55.6)
프 랑 스	(499.3)	(475.0)	(47.3)	(30.1)	(39.0)	(76.0)	(133.0)	(120.0)
西 獨	45.6	60.1	4.6	15.9	39.1	22.0	6.6	15.0
이 탈 리 아	456.4	240.6	159.4	116.7	89.6	101.0	97.0	82.0
네 덜 란 드	40.3	13.4	2.3	6.8	2.9	48.0	32.0	84.0
로 르 투 칼	65.3	62.3	28.6	24.8	15.3	18.0	22.0	19.0
스 케 인	119.0	126.0	47.3	58.7	42.3	67.0	123.0	114.0
英 國	142.2	80.8	8.1	20.7	12.7	9.0	47.0	67.5
東 歐	310.8(9.5)	243.0(9.9)	65.4(8.8)	47.5(5.9)	30.0(4.1)	16.0(1.9)	25.0(2.3)	53.5(3.9)
中 東	52.3(1.6)	40.9(1.7)	10.9(1.5)	35.0(4.3)	25.0(3.4)	2.0(0.2)	15.1(1.4)	55.0(4.0)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아 프 리 카	103.2(3.2)	80.6(3.2)	21.2(2.8)	15.5(1.9)	10.0(1.4)	24.0(2.8)	11.6(1.1)	22.0(1.7)
아 시 아·極 東 (日 本)	398.3(12.2) (259.3)	448.1(18.2) (323.9)	118.8(15.9) (60.5)	127.1(15.7) (67.1)	37.0(5.1) (9.6)	14.0(1.6) (14.0)	123.3(11.4) (70.5)	233.0(16.9) (163.0)
오세아니아·기 타	385.7(11.7)	16.6(0.7)	-	-	-	-	-	-
計	3,275.3(100%)	2,459.0(100%)	746.1(100%)	811.4(100%)	725.4(100%)	856.0(100%)	1,085.4(100%)	1,372.0(100%)

한편, 수출관료에 대해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주요 수출선과의 바터 거래 확충에 따라 수출량은 '87년도에 이르러 전년 대비 25% 증대하였다. 단, 石油수입의 면에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바터거래의 확대는 확실히 수출량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직접, 石油수입의 증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터키 경유의 파이프 라인 수송력을 확충하였고, 특히 서구 방면의 판로확보를 노리고 있는 점은, 단순히 공급량 증대 뿐만이 아니고, 石油수입을 유지, 증대시키는 점에서, 이라크의 石油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란·이라크 전쟁전의 양국의 석유정책

(1) 이란의 변천

8년 가까이 끌어온 이란 이라크 전쟁을 지난 8월 20일 휴전으로 끌어들이는 근본원인을 이란측으로부터 검

중해 보면 石油가격 하락에 의한 石油수입의 급감은 증산에 의하여 보충할 여력이 없었다는 데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더우기 이란이 原油 생산 삭감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79년 2월에 성립된 회교 혁명 정권이다. 그런데 혁명 정권전 팔레비 정권하의 石油정책의 최대 특징은 「고가격 유지에 근거한 생산 수출 증강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이란은 가격 인상의 강경파로 간주되었으며, 소비국의 수요 감퇴를 염려하여 온건한 가격인상을 주장하는 사우디와 대립하였다. 이란의 이러한 石油정책의 배경에는 팔레비 정권이 美國의 강력한 정리, 군사적 지원하에서 급격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중동에 있어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비 증강에 막대한 자금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란의 原油생산량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OPEC 전체를 능가하는 증가율로 상승하여 '74년에는 연평균 사상 최고인 600만 b/

〈표-8〉 이란의 10대 유전 (1976)

		확 인 매 장 량 1976 1月 1日 (100萬배럴)			생 산 량 1976年 1~6月 (1,000b/d)
1	Marun	8,084	1	Marun	1,348.4
2	Gach Saran	7,512	2	Ahwaz Asmari	937.0
3	Ahwaz Asmarl	7,391	3	Agha Jari	852.4
4	Bibi Hakimeh	6,925	4	Gach Saran	619.6
5	Agha Jari	3,843	5	Paris	356.7
6	Pazanan	3,367	6	Karanji	263.2
7	Paris	2,377	7	Bibi Hakimeh	233.9
8	Rage Safid	2,187	8	Rage Safid	200.3
9	Masjid-e Suleiman	1,514	9	Sassan	153.0
10	Sassan	1,093	10	Fereidoon	97.5

〈資料〉 Arab Oil & Gas

d 수준에 달하였다. 이 생산수준은 당시의 이란 생산 능력인 680만 b/d의 89%(기동률)를 차지하여 OPEC 평균수준을 대폭 상회하였다.

한편 수출량도 같은 해에 사상최고 수준에 달하여 사우디에 이은 세계 제2의 수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는 제1차 석유위기 하에서 OPEC 제국이 禁輸생산 삭감조치를 취하여, 가격이 4배로 급등한 시기였다. 이란은 이러한 石油수급의 변화를 판단한 것처럼 수출량을 증대시켰던 것이며, 확실히 팔레비 정권의 기본전략인 근대화 정책추진을 위해 석유수입 극대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74년에 피크에 달한 이란의 原油생산·수출량은 '78년까지 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다음해인 '79년의 이란혁명을 계기로 급락하였다. 이것은 이란이 70년대에 생산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생산을 유지하였고, 생산능력자체의 감소('78년의 690만 b/d에서 450만 b/d), 이밖에 이란의 석유산업 국유화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가 유출된 데 기인한다.

별도의 전례로는 이란혁명에 의한 혼란 중 새로운 정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석유정책에 따라 對 이라크 전쟁이전에 자금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도 생산수준을 급락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 이라크의 변천

'70년대 이라크의 石油정책의 특징은 前半에 있어서

는 석유산업 국유화 움직임으로 집약된다. 당시 中東에서는 메이저에 의한 세계 수급전략하에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이 중심이었으며, 이라크는 메이저의 관리하에서 생산조정국으로서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이라크는 60년대 후반부터 中東산유국에 의한 경영참가로의 흐름을 배경으로 '75년말 국내의 석유산업 완전 국유화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76년부터 이라크는 독자의 석유정책에 근거하여 「중산체제의 확립과 수출경로의 확충」이라는 2대 목표에 역점을 둔 것이다. 단지 이라크의 독자적인 석유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시리아 경유 송유관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즉 27년에 이라크 최대의 쿠르쿠크 유전이 발견된 이래 그 생산 원유는 이 송유관을 경유하여 수송되어 왔다. 그런데 그 때 시리아와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이라크의 石油 공급면에서 불안정 요소가 되어 왔다.

이라크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디나-무마 이라간을 연결하는 전략 송유관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화오 앞바다에서 深水 오일 터미널, 코르, 알. 아미야, 알 바쿠르의 건설확장에 전력을 투구하였다. 또한 키루쿠크 유전으로부터 터어키 경유의 송유관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의 선적능력 확장과 터어키 경유에 의한 지중해로의 선적능력 확보

〈표-9〉 이라크의 주요 유전('76년 현재)

	발견년도	API°	硫 黃 함 유 율 (%)	심 도 (피트)	매 장 량 (100萬 배럴)	생산량 (1,000b/d)		
						1975	구 성 비 (%)	1980
키 르 쿠 쿠	1927	36.0	1.85	4,200	9,847	960	42.7	800
바 이 하 산	1953	33.2	2.6	5,400	1,009	35	1.6	} 500
장 브 르	1954	40.5	1.2	5,500	n. a.	55	2.5	
아 인 자 라 프	1939	31.5	n. a.	6,500	64	6	0.3	} 1,600
부 트 마	1952	31.0	n. a.	3,900	n. a.	1	0.0	
南 루 마 이 라	1953	35.0	n. a.	10,800	12,131	804	35.8	
주 바 일	1948	36,42,28	n. a.	11,200	3,658	200	8.9	} 800
北 루 마 이 라	1958	34.0	n. a.	10,500	5,000	157	7.0	
						2,248	100.0	3,700

〈資料〉 Arab Oil & Gas

라는 수송경로의 다양화를 도모하면서, 80년대로 향하여 증산체제를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4. 이란·이라크의 향후 석유정책 전망

(1) OPEC의 결속회복에 대한 전망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OPEC 총회에서 ①'89년 1월부터 6월에 생산쿼타를 1,850만 b/d(중전은 이라크를 제외 1,506만 b/d)증가시키고, ②이란의 생산쿼타를 중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14.27%로 하고 ③이라크에 대해서는 다른 11개국이 자국의 생산쿼타 일부를 공여하고 ④OPEC의 石油 목표가격은 중전대로 배럴당 18달러로 한다는 OPEC 사무국의 최종 제안을 이란이 수락함으로써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결과 이라크는 2년 3개월 만에 OPEC 생산쿼타에 복귀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생산쿼타는 최근 OPEC 생산실적으로 보아 대폭적인 감소이며, 동시에 금년 상반기의 OPEC 수요량(1,925만 b/d)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이 OPEC의 낭보를 반영하여, 두바이 原油는 2달러 이상 급등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때까지의 石油시황이 침체상태가 확실히 '86년 가격 폭락의 재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전 OPEC가 총회, 기타 위원회 등을 개최할 때마다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주시하였으나, OPEC가 생산협조를 위한 효율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실망감에 빠졌던 것이다.

이번「OPEC 신체제의 확립, 가격 안정을 위한 신생산 쿼타 설정」이라는 목적하에서 합의되었으나, 문제는 OPEC 11개회원국이 쿼타 증가분의 대부분을 이라크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OPEC 전체가 재정악화 상황에 있어 어쨌든 증산의욕이 강해 불안요소는 미래로 떠넘긴 상황이다.

그렇다면 OPEC는 향후 카르텔로서의 기능, 결속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70년대 석유위기를 통해 OPEC가 배운 교훈은 「시장에서 과반의 생산량을 지배하게 되어 가격조작이 가능하게 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즉 「생산여

제와 고가격 유지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원칙을 무시한 탓으로 급격한 수요 저하(省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 촉진)와 함께, 공급면에서 非 OPEC 산유국의 高コスト유전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즉 공급측의 다양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 결과 70년대에 번영을 구가했던 OPEC의 영광도 80년대에 들어와서 서서히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장지배력의 감퇴를 가져왔던 것이다. 또한 OPEC의 영향력을 유지시켰던 요소로서 거대한 石油수입으로 축적된 재정기반을 들 수 있다. 즉 막대한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석유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까지 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흑자 기조도 생산량 세어 하락에 따라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와 같이 카르텔로서의 OPEC의 영향력은 시장에 있어서 「생산세어의 저하, 재정기반의 악화」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여,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PEC의 맹주로서의 사우디도 OPEC와 동일한 과정을 걸어 온 것이다. 그 결과 '85년에 사우디가 중전의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적절한 시장세어 회복정책」으로 전환(중산지향)하였으며, 그것이 OPEC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우기 최근에 사우디 움직임으로서 「대 증산, 저가격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쿼타 위반국가에 대한 억제 조치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石油가격 증시에서 장기에 걸친 石油수요 확보를 목표로 한 石油전략으로 정책전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OPEC 전체로서도 이러한 사우디의 장기전략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18달러 체제 복귀가능성도 유명무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우디도 가격폭락은 바라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점에서, 가격 유지 카르텔로서의 OPEC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우디 자신의 재정사정도 있어, 자신의 영향력 회복이전에 생산세어 회복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이번의 생산쿼타 합의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OPEC가 처한 입장과 사우디의 전략 전환등을 감안하면, 회원국이 생산쿼타를 준수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된다. 말하자면, 이번의 OPEC합의는 이라크의 생산쿼타 복귀를 대전제로 이란·이라크의 주장을 가능한 한 인정하는 과정이며, OPEC 전체의 합의를 우선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생산쿼타의 대폭적인 증대를

취득한 것은 이라크 뿐이며, 가격하락의 근본원인인 생산쿼타 위반국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가격회복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표-10〉 OPEC의 산유량 추이(1988)

(단위: 천 B/D)

	1987 (평균)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OPEC 산유쿼타	생 산 능 력	가동율 (1)(2)(%)
O P E C	17,702	17,225	17,210	17,325	18,480	18,480	18,740	18,840	20,105	20,720	21,435	15,060	27,760	77.2
사우디아라비아	4,011	4,100	4,250	4,200	4,350	4,350	4,350	4,500	5,000	5,100	5,800	4,343	8,750	66.3
이 란	2,285	2,000	1,900	2,000	2,200	2,200	2,100	2,300	2,300	2,500	2,400	2,369	3,000	80.0
이 라 크	2,079	2,400	2,500	2,500	2,650	2,600	2,700	2,600	2,600	2,700	2,700	-	2,800	96.4
쿠 웨 이 트	1,160	1,000	1,000	1,000	1,100	1,000	1,200	1,250	1,400	1,500	1,500	996	2,500	60.0
아랍에미리트	1,458	1,145	955	1,155	1,325	1,300	1,305	1,330	1,805	1,865	1,900	948	2,100	90.5
카 타 르	308	325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50	299	600	58.3
中 立 地 帶	391	260	200	215	400	425	425	250	340	320	300	-	-	-
베 네 수 엘 라	1,542	1,570	1,570	1,570	1,570	1,570	1,625	1,625	1,625	1,700	1,700	1,571	2,150	79.1
나 이 지 리 아	1,291	1,300	1,350	1,300	1,350	1,400	1,400	1,350	1,400	1,450	1,450	1,301	1,700	85.3
인 도 네 시 아	1,189	1,100	1,100	1,100	1,200	1,200	1,200	1,200	1,200	1,100	1,100	1,190	1,350	81.5
리 비 아	972	950	1,000	900	950	1,000	1,000	1,000	1,000	1,050	1,100	996	1,600	68.8
알 제 리	635	600	600	600	600	650	650	650	650	650	650	667	700	92.9
가 붐	156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59	200	87.5
에 콰 도 르	225	30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221	310	100.0

〈資料〉 PI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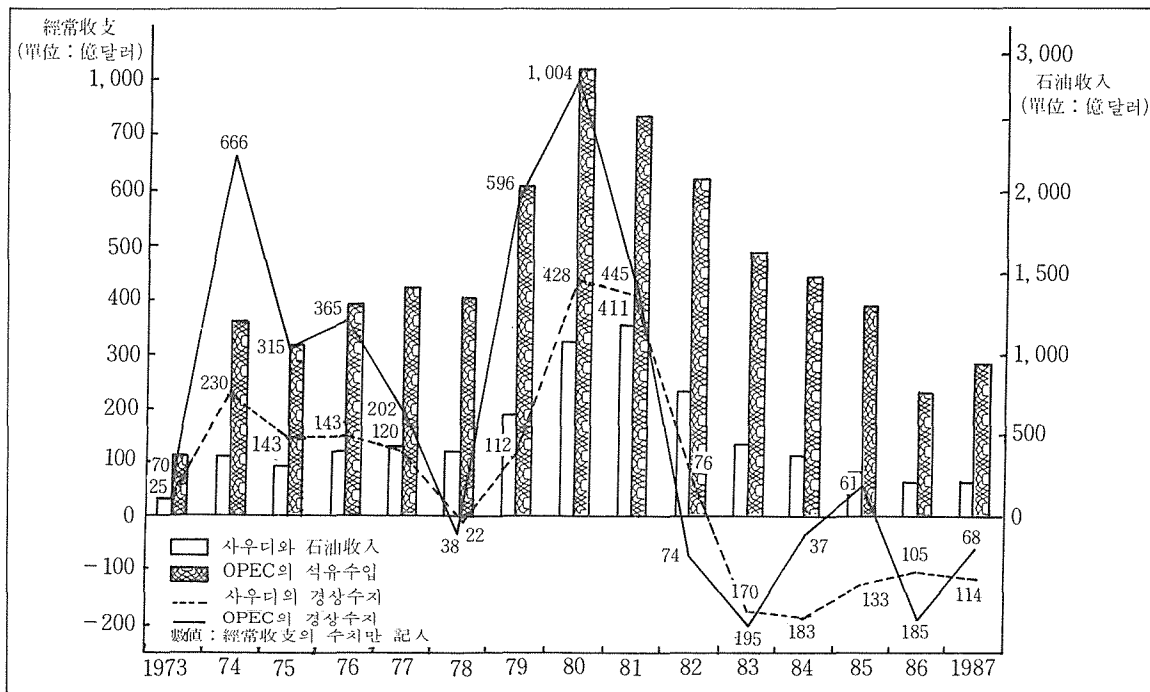
〈표-11〉 사우디아라비아 및 OPEC의 산유량과 재정 추이

(단위: 천 B/D, 백만달러)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原 油 生 産															
사우디아라비아	7,596	8,480	7,075	8,577	9,200	8,301	9,532	9,900	9,808	6,483	4,539	4,079	3,175	4,784	4,011
(對 OPEC : %)	(24.5)	(27.6)	(26.1)	(27.9)	(29.4)	(27.9)	(30.8)	(36.8)	(43.4)	(34.1)	(26.7)	(25.0)	(20.1)	(26.1)	(22.7)
O P E C	30,989	30,729	27,155	30,737	31,253	29,805	30,929	26,879	22,509	18,992	16,992	16,347	15,448	18,333	17,702
(對 全 世 界 : %)	(55.9)	(55.1)	(51.5)	(53.4)	(52.3)	(49.5)	(49.3)	(45.0)	(40.3)	(35.3)	(32.3)	(30.6)	(29.0)	(32.6)	(31.5)
世 界 計	55,479	55,813	52,747	57,567	59,807	60,266	62,800	59,766	56,028	53,730	52,685	53,503	53,224	56,225	56,152
財 政 狀 況															
사우디아라비아															
石 油 收 入	8,956	35,476	29,473	38,157	43,308	40,332	62,855	108,174	118,998	78,119	44,832	36,263	25,936	21,190	20,481
(對 前 年 增 減 率 : %)	(63.5)	(396.1)	(△17.0)	(29.5)	(13.5)	(△6.9)	(55.8)	(72.1)	(10.0)	(△34.4)	(△42.6)	(△19.1)	(△28.5)	(△18.3)	(△3.3)
무 역 수 지	7,014	32,697	25,469	29,593	28,807	20,315	38,967	78,917	84,607	38,433	6,665	3,826	3,857	4,820	-
경 상 수 지	2,520	23,025	14,385	14,360	11,991	△ 2,212	11,167	42,751	41,129	7,575	△16,953	△18,395	△13,255	△10,500	△11,404
O P E C															
石 油 收 入	37,035	119,814	107,854	130,170	142,185	135,602	202,433	286,969	265,637	208,177	163,069	149,226	131,967	77,073	95,699
(對 前 年 增 減 率 : %)	(57.2)	(323.5)	(△10.0)	(20.7)	(9.2)	(△4.6)	(49.3)	(41.8)	(△7.4)	(△21.6)	(△21.7)	(△8.5)	(△11.6)	(△41.6)	(24.2)
경 상 수 지	7,023	66,652	31,459	36,852	20,174	△ 3,784	59,583	100,351	44,455	△ 7,386	△19,539	△ 3,726	6,052	△18,490	△ 6,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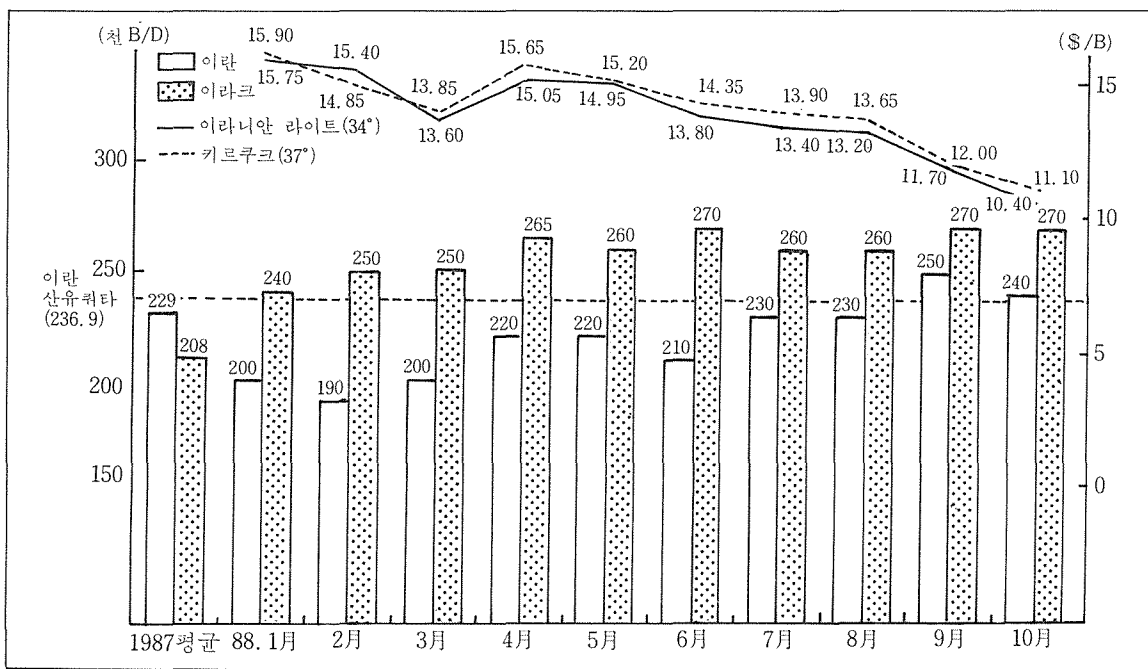
〈資料〉 OPEC統計, PIW

〈그림-2〉 사우디아라비아 및 OPEC의 재정 추이



〈資料〉 OPEC통계, PIW

〈그림-3〉 이란·이라크의 산유량과 원유가격 추이



〈資料〉 PIW, PMI

(2) 이란 · 이라크 양국의 향후 석유전략 전망

이라크와의 생산쿼타 페리티(Parity)거부를 계속 주장하여온 이란은 마침내 '89년 1월부터 6월의 생산쿼타 1,850만 b/d 가운데 14.27%(새로운 생산쿼타 264만 b/d)의 세어를 확보하였으며, OPEC 11개국에 의한 이라크의 쿼타 증액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소극적이지만 이라크와의 동량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이란이 최종적으로 양보한 배경에는 만일 이번의 OPEC 총회가 결렬되면 石油시황이 10달러를 밀도는 사태가 벌어져 이란으로서도 전후 복구자금(석유수입) 확보에 큰 타격이 된다. 그래서 이라크 보다 증산역력이 없는 이란으로서 가격하락을 양으로 보충하는 것은 현재 곤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란은 石油가격을 회복시켜, 石油수입의 확대를 목표로 한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후 처리로 아랍제국과의 관계개선이 당면과제로 되고 있는 이라크로서, OPEC내에서의 양보는 외교상의 정치적 판단이며, 동시에 이라크의 생산쿼타 복귀로 자국의 증산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잇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란은 정치적이면서 현실적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라크는 이란이 이라크와 동량을 인정하여 요구대로 대폭적인 생산쿼타 증가를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31일에 재개된 이란 · 이라크의 정전 교섭은 현재 진전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란 · 이라크 양국은 이번의 신생산 쿼타에 근거하여, 어떠한 石油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우선 이란에 있어서는 10월의 산유량이 9월에 이어 당시의 생산쿼타(236.9만 b/d)를 상회하였다. 단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의한 유전탐사 활동부족이나 2차 회수기술의 낙후 등으로 조기에 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곤란하며, 더우기 자금의 여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재 이란의 石油생산 능력은 전쟁 발발시인 80년과 마찬가지로 250~300만 b/d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란으로서 향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능력을 늘리는 것이다(최근 '93년까지 생산능력을 360만 b/d까지 확충 계획 발표). 왜냐하면 이란혁명때까지 이란의 생산능력은 이라크에 비해 약 2배의 격차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꾸로 이라크보다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란은 국내 정유공장의 복구를 포함, 石油관련 시설의 복구와 함께 개발투자촉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그 복구자금을 여하히 확보하는냐이다. 즉 석유수입, 혹은 대외차관 어느쪽에 의존하느냐의 선택에 직면하여 石油정책과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복구자금 확보의 수단을 둘러싸고, 이란 국내에서 정치문제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문제는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석유 바터거래, 장기저리에 의한 외국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란이 전후경제 재건을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란의 국내 사정을 배경으로 이란의 향후 생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황을 주시하면서 경제복구에 따른 자금수요의 페이스에 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출정책이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란은 OPEC내에서는 가격 유지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실제거래에서는 할인판매, 바터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란은 시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일정한 시장세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수출경로의 확보책으로서 과제는 開戰前에 600만 b/d 이상의 출하능력을 갖고 있던 하르그섬의 石油수출 기지의 완전복구이다. 즉 현재 150만 b/d 전후 까지 감소된 능력을 향후 서서히 증대시켜 안정된 공급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이라크에 있어서는 10월의 산유량이 9월에 이어 270만 b/d를 유지하였으며, 1월에는 10월 평균으로도 약 260만 b/d로 이란 ·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80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이란과 비교하여 石油관련 시설의 피해가 경미했기 때문에 이라크의 원유생산능력은 전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350~400만 b/d로 예상된다. 총액 7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대외 채무를 안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 이상으로 증산에 의한 石油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라크가 현재 안고 있는 현안문제는 수출경로의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石油생산에 관해서는 현행의 생산능력이 350~400만 b/d(향후 수년 이내에 450만 b/d확대 가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생산 수준까지 증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능력이라는 점에서 송유관 수송량과 육상 수송분을 합해도 약 220~230만 b/d이며, 내수분 40만 b/d를 더하더라도 생산량은 최고 260~270만 b/d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88년 가을에 완공예정인 사우디 경유 송유관-II가 완공되면 수출능력(송유관)은 315만

b/d로 증가된다. 또한 향후 페르시아만으로부터의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수출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이라크의 原油생산수준에 있어서도 400만 b/d의 생산체제가 현실로 될 것이다.

이리하여 이라크는 '88년 가을 이후의 수출능력 확충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의 OPEC 생산쿼타에 복귀하였으나, 향후 증산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어쨌든 향후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저한 차이로써 우선 이란은 당면한 국내 石油사정을 고려하여 OPEC와의 협조 노선을 견지하고, OPEC 제국에 신생산 쿼타 준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란 국내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석유수입을 확보하는 데에 OPEC, 특히 灣岸제국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표-12〉 이란·이라크의 石油공급 전망

(단위 : 만 B/D)

OPEC 原油 수요			이란·이라크의 原油 공급				
	수요량	증감(1)	이란	이라크	계	증감(2)	(2)-(1)
1987	1770	-	229	208	437	-	-
1988	1830	60	226	260	486	49	△ 11
1989	1880	110	270	300	570	133	23
1990	1930	160	300	350	650	213	53

〈표-13〉 이란·이라크의 石油수입 전망

이 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原油 생산(萬B/D)	219	204	229	226	270	300
내 수(萬B/D)	65	64	70	70	70	80
石油 수출(萬B/D)	161	146	153	156	200	220
평균수출가격(\$/B)	22.3	12.4	17.9	13.7	I 10.0	I 10.0
					II 13.0	II 13.0
					III 16.0	III 10.0
石油收入(百萬달러)	13,115	6,600	10,000	7,801	I 7,300	I 8,030
					II 9,490	II 10,439
					III 11,680	III 12,848

이라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原油 생산(萬B/B)	140	188	208	260	300	350
내 수(萬B/D)	26	28	30	30	40	40
石油 수출(萬B/D)	116	147	178	230	260	310
평균수출가격(\$/B)	27.0	13.0	17.4	14.1	I 10.0	I 10.0
					II 13.0	II 13.0
					III 16.0	III 16.0
石油收入(百萬달러)	11,380	6,980	11,300	11,837	I 9,490	I 11,315
					II 12,337	II 14,710
					III 15,184	III 18,104

이에 대하여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안의 수출기지 복구를 필두로 수출경로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신 생산 쿼타의 제약이 있으나 가능한 한 공급량을 증대시켜 석유수입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을 정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란·이라크 양국 모두 향후 국제 石油시황의 동향에 따라서는 쌍방의 기본전략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OPEC의 原油생산능력은 과거 10년 동안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이것은 OPEC 내에서의 원유생산 여력의 불균형에 따른 가맹국간의 대립을 격화시켰으며, 그 결과 각 회원국의 증산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OPEC의 합의에서도 쿼타 증가분의 대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불만이 남아 있으며, 재정상태 개선을 위한 증산의욕은 강하다.

현재 이란·이라크 쌍방 모두 생산능력, 수출경로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장래를 겨냥한 양국의 석유전략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석유협회보 지령100호

